

▶ 전북독립영화제 내일 개막

지나쳐버릴 법한 일상도 그곳엔 특별한 순간으로

현실과 밀착된 이야기로
깊이 있는 공감대 형성
독립영화의 새로운 재미
묘미 등 느낄 수 있어



우리가 인생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과 목소리를 재치 있게 담아내는 독립영화. 그냥 지나쳐버릴 법한 일상도 그곳에선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된다.

우리네 현실과 밀착된 이야기들로 깊이 있는 공감대를 만들면서 한편으로 독립 장·단편영화의 새로운 재미와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독립영화인들의 축제, '2017전북독립영화제'가 2일 오후 7시 CGV전주고사점 1관에서 독립영화 축제의 막을 연다.

전북독립영화제는 2010년부터 개막작을 자체 제작하며 지역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그 해 전국에서 작품성과 개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단편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영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올해는 총 4편의 단편영화를 개막작으로 상영한다.

우선 전라북도가 제작지원하고 (사)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한 2017마스터와 함께하는 전북단편영화제작소를 제작지원 선정작 이상혁 감독의 '목욕탕 가는 길'을 필두로, 2017대 구단편영화제에서 작가도발상을 받은 애니메이션 박재범·김정석 감독의 '빅 피쉬' 그리고 올해 대구지역에서 만들어진 우수독립영화이자 2017정동진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정병

2017 전북독립영화제가 오는 2일 오후 7시 CGV 전주고사점 1관에서 개막한다. 사진은 개막작 '목욕탕 가는 길' 포스터를 캡처한 모습. ▶

개막작

- '목욕탕 가는 길'
- '맥북이면 다 되지요'
- '시시콜콜한 이야기'
- '빅 피쉬' 등 4편 상영

기 감독의 '맥북이면 다 되지요'가 관객들을 맞이한다.

또한 2017마장엔 단편영화제 관객상을 받은 조용익 감독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등 한국 독립 단편영화의 현주소를 담은 각각각색의 영화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영화제 관계자는 "총 4편의 단편영화로 구성된 80분의 개막작은 지역의 안과 밖에서 제작된 한국 독립영화의 현 주소를 접하는 축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영화제에선 공모작 742편(장편 45편·단편 697편)중 선발된 30편(장편 3편·단편 27편)의 경쟁작을 만날 수 있다.

경쟁작은 국내 및 온고를 경쟁부문으로 구분된다. 국내경쟁은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대상으로 총 24편이 선정되었고, 지역경쟁인 온고를 경쟁부문은 전북의 영화인 또는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 총 6편이 본선에 올랐다.

'2017전북독립영화제'는 응모진상(대상) 1편, 다부진상(우수상) 1편, 아무진상(우수상) 1편, 본 상 외 관객상 및 배우상 등을 시상한다.

영화제는 오는 6일까지 총 5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과 CGV 전주고사점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공모작 742편 중 선발된
30편 경쟁작 선보여
국내·온고를 경쟁 구분
6일까지 5일동안 열여

'이달의 기자'는 누구일까?

전북 CBS(본부장 손정태) 보도제작국 소속 이균형, 임상훈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325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전북 CBS 이균형·임상훈 기자 한국기자협회 수여 기자상 수상 수상작 '리베이트 뒷 걸린 지방의원들'

수상작은 지역 방송부문 기획보도 '리베이트 뒷에 걸린 지방의원들-재량사업비 뒷돈 거래부터 전국 최초 폐지선언까지...'이다.

이번 기획보도는 3개월에 걸친 사전 취재를 거쳐 전북 도의 원과 시·군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리베이트 거래 실태를 폭로하고, 재량사업비 폐지 당위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보도가 나간 뒤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년여 가까운 방대한 수사를 통해 전·현직 지방의원 7명과 공무원, 브로커, 업자 등 모두 21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지역 정계에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은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의회와 전주시 의회는 전국 지자체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부터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도내 여성들의 문예창작 갈증 해소

전북여성백일장 개최

당선자는 오늘 오후

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여성들의 문예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전풍을 이어가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자는 1일 오후 3시 센터 홈페이지(www.jwcc.or.kr)를 통해 공지된다. /정해은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는 지난 31일 '제45회 전북여성백일장'을 개최했다.

전북여성백일장은 도내 여성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인문·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고자 마련됐다. 1973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명의 등단 작가를 배출했다.

문학과 산문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백일장엔 글쓰기를 좋아하는 도내 성인 및 결혼 이주 여성 등 총 120여명이 참여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송희 시인의 글쓰기 특강은 여성들의 창작 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대회 수상자에게 장원 각 100만원, 차상 각 50만원, 차하 각 30만원 등 총 5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자들의 모임인 글벗 동인 활동 자격과 함께 글쓰기 지도 강사를 통한 전문적인 문예창작 수강의 기회도 주어진다.

신수미 센터장은 "전북여성백일장이 45회째를 맞아 지역 여성의 성원과 참여 속에 도내 여성의 가을 인문 행사로 자리 잡았다"면서

3일 창작예술학교 AA 공개특강

팔복예술공장은 '창작예술학교 AA-미술·인간·사회' 공개특강을 오는 3일 연다.

'창작예술학교AA(Art Adapter)'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재)전주문화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예술가를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 예술교육구조를 벗어나 전공과 상관없이 창의적인 능력과 미학적인 가치관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대안예술학교다.

이날 오후 6시~8시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기획단 사무소에서 열리는 강의에는 이대형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특강은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현재를 살피는 동시에, 이대형 감독이 고민하는 '미술·인간·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강좌 참여대상은 창작예술학교 AA 참가자 및 일반인이며, 선착순 40명이다. /정해은 기자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

제3회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기간 2017. 11. 3. ~ 5.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주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063)320-2841~2